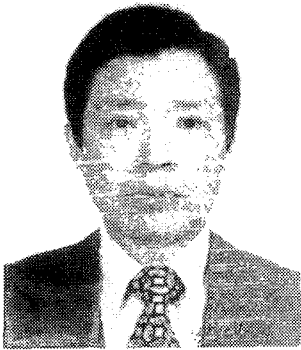




# 어느 배출시설 관리인과 함께



金 亨 勳  
(환경청계회조정국장)

'51년 충남唐津産, 某一流大化學科를 졸업하고 육군병장으로 제대한 후 회사에 공개채용과정으로 입사한지 10년째 근무하고 있다.

배우지 못한 한을 지식에게서 물어보려는 부친의 피멍울진 뒷바라지를 일찍 깨달아 세칭 일류대를 졸업하였고 고향마을에서는 아무개가 자식한놈 잘 두었다고 동네어르신들 술추념자리에서 아버지가 한꺼번에 화제에 오르던 때가 있었다.

除隊와 동시에 밀려든 石油波動으로 취직자리 구하기 어렵던 시절에도 용케 경쟁자들과 당당히 실력으로 겨루어 入社의 영광을 안으면서 고향에서는 젊은이의 우상이 되다시피 하였다. 그가 모처럼 고향에 들른다는 소식을 집에 알리면 어찌된 영문인지 우물가 빨래터에 모이는 처녀들의 매깔이 유난히 환해지기까지 하였다.

그럼에도 연분탕이였든지 아니면 부모의 덕없는 自負와 본인이 그리던 女人像의 묵시적 영합이였든지, 같은 회사에 근무하던 발랄한 이곳(수원) 처녀와 결혼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대인관계도 원만하고 실력도 한껏 인정받아 入社 2년만에 한 등급 올랐고, 實驗室의 팀장으로 중간리더가 되었으며 필요에 따라 처음에는 무시하기까지 했던 公害管理技師資格을 힘들이지 않고 취득하였다. 회사에서는 인정받았고 가정에서는 행복하였다.

시절은 끝없이 흘렀고 사회는 공해에 대하여 눈을 부라리기 시작했으며 당국은 공장의 공해 배출에 신경을 곤두세우자 공장은 대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적임자로 그가 찍혔다. 專任의 배출시설관리인 무엇인가 인정감을 가졌으며 동료들은 부러워하였다. 그 덕에 팔달로 큰 집에서부터 매산동 무진장옥까지 몽롱한 기분으로 헤메기도 여러번이었다.

배출시설관리인부임, 우리회사안에 이런 후미진 데도 있었는지 몰랐던 처음 가보는 곳이었다.



잡초는 무성하고 삭은 PSP가 깨진 콘크리트 도랑위에 지친듯 누워있고, 안내하는 전입자 아저씨가 앞서지 않았더라면 들어가기조차 무언한 쓰러져가는 나무문을 비집고 짐채만한 기계앞에서면서 그의 전속적 지배하에 들어온 이 宮殿이 雜草 저쪽에 우뚝솟아있는 생산공장과 어떤관계에 있으며 얼마나 초라하고 지쳐있는지를 뺏속까지 저리도록 실감할 수 있었다.

무표정한 아저씨가 곡예하듯 사라지면서 그는 고향 바닷가의 漁船工作터에 버려진 廢船에 누워있던 자신을 연상하였으며 톱쏘여의 모험이 회상되기도 하였다.

그는 열심히 일했다.

그의 기량을 최대한 살려 廢水處理施設의 患部를 찾아냈고 手術과 投藥을 진언하였으며 비록 지지부진하기는 했으나 처음의 죽기전 송장을 起死回生시켰다. 그러면서 그는 自己의 宮殿 뿐 아니라 이제는 그 자신까지 초라해져가는 감을 버릴 수 없었다.

회사는 송장이 回生할 때까지는 말없이 무당도 呪術者도, 돌팔이 醫師도, 학문높은 道人도 불러주었다. 그는 기뻐다. 어릴 때 물에빠져 눈을 까뒀집은 친구를 인공호흡시켜 녀석이 한숨을 길게 토하자 끈끈한 唾疲을 뿜뿜 뱉으며 누런 이를 드러내며 回生하자 웃으시던 아버지 생각도 났다.

그러면서 그가 얼마나 관리과장님, 부장님을 곤란하게 하였으며 사장님의 노여움을 샀는지를 알고서는 움찔하지 않을 수 없었다.

회생한 시체는 수줍은 듯 움직였다. 까다로운 新婦였다. 소화제를 長服하고 過食하면 까무러친다. 가난한 신랑은 어르다 달래다 못해 눈물을 흘리며 구원을 청했다.

사장님은 신경질을 부리다 화를 냈고 꾸지람을 돌돌 뭉쳐 그에게 내동댕이쳤다.

눈치없는 녀석이라고, 新婦가 피곤하면 쉬는게 약이라고.

그러는 사이에 入社동료들은 어느듯 그와 비교할 수 없는 위치에 올랐다. 그는 위축되었다. 그는 경쟁의 기회를 가질 수 없었다. 경쟁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 누구도 그와 경쟁하려고 하지

않았다.

그의 신부는 성깔을 고치지 않았으며, 어려운 분들이 신부를 보고자 할 때에만 소화제를 먹고 무대위에서는 꼭두각시가 되었다. 그는 그 꼭두각시를 놀리는 광대가 되었다.

그는 요즘에 신부를 죽여버릴까 하는 끔직한 생각을 하곤한다. 그래야 사장님이 신부와 그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을까해서 말이다. 경쟁기회를 갖게되지 않을까해서 말이다.

그는 요즘에 신랑동우회를 결성할까 하는 생각도 한다. 그래야 신부가 머느리답게 되지 않을까해서다. 머느리가 머느리구실을 못하면 집안꼴이 풍지박산되는 것을 뼈저리게 체험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모님과 상면못한지도 벌써 몇해인지 모르겠다.

우리나라에는 현재 약 4万个의 배출시설이 있으며 각 배출시설마다 배출시설관리인을 두고 있다. 그들은 모두 나름대로 오염방지에 관심을 가지고 어려운 조건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다. 오염방지를 위하여 방지시설을 정상가동하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방지시설의 정상가동은 상당한 비용을 요하고 생산단위단가의 상승요인이 되기 때문에 이윤증대측면에서는 기업주로서 꺾끄럽게 생각하는 경향도 많다. 작업내용이 혐오감을 갖는 물질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누구나 가까이 가려고 하지 않는다. 그래서 조직내에서도 다소 경원시되고 상하관계가 단절되기 쉬우며 人事考課에 있어서도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게되기 십상이고 자칫 위법이 적발되면 관리층의 무관심한 결과임을 반성하기는 커녕 질책과 화물이의 대상이 된다.

배출시설관리인은 환경오염방지의 최전선에서 수고하는 환경관리요원의 첨병이다.

이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신바람이 나게 함으로써 환경개선의 효과를 더욱 드높일 수 있는 방안이 정부와 기업체에서 깊이 검토해야 할 시기가 왔다고 생각된다. \*

